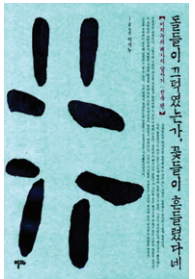


사라진 '터'에서 사라진 것들을 생각해 내다



돌들이 끄덕였는가, 꽃들이 흔들렸나네
이자뉴 지음
알마 펴냄
2만2천원

“묘하게도 전라북도의 폐사지를 돌아볼 때는 다른 어느 지방의 순례와는 또 다른 기분에 휩싸인다. 더욱 쓸쓸하기도 하고 깊은 고독에 휩싸여 말을 잃기도 한다. 그것은 전라북도의 폐사지가 뿜어내는 치명적인 매력이다. 그렇기에 더욱이 자신을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라북도 폐사지의 분위기가 그러한 것은 폐사지에 떠돌고 있는 사연들 때문일 것이다.” 전라북도의 절터 여덟 곳을 답사한 책이다. 1권 '전남' 편 (마음과 짝하지 마라, 자칫 그에게 속으리라)에 이은 2권이다.

답사는 남원 만복사에서 시작해 남원 개령암터와 호성암터, 완주 경복사터와 보광사터, 고창 동불암터 그리고 부안 불사의방터와 원효굴터로 이어진다. 저자는 시적인 감상으로 때로는 설화와 전설, 민담으로, 역사적 사료를 통해 절터 사라진 절터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단순한 관찰자나 보고자가 아닌 순례자의 시선으로 옛 절터의 진면목을 찾아 보여준다. 절터는 버려진 장소다. 그 옛날에는 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터'일 뿐이다. '있었던' 곳이다. '있었던' 곳에 지나지 않는, 차라리 없었던 것보다 못한 아쉬움의 장소인 그 곳에서 저자는 '터'만이 가지고 있는 '고요'를 찾아낸다. 인간 위주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연이 들려주는 현장의 소리에 주목



호성암터의 마애불은 큰바위 가운데에 새겨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한다. 저자는 이것이 부처님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듯 폐사가 되어 절의 흔적이 가뭇해지고 나면, 절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처님 머문 자리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고 물이 고이는가 하면 묵탁과 염불 그리고 풍경과 범종 소리쯤은 앨범에 끼워 책장에 끼워두거나 서랍 속에 넣고 다닐 필요가 있다. 절터를 예외 쓴 채 머무는 자연의 소리는 부처님의 법어와 동격이기 때문이다. 이 순정환 새벽의 맑은 새소리 한 줄이 여저정량한 부처님의 말씀보다 못하겠는가.” 저자는 터가 내놓는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절터에서 찾아낸 고요 속에서는 전라북도만의 독특한 미륵사상을 본다. 전라북도의 미륵신앙은 지장보살 신앙과 결합되어 있다. 미륵은 현재에서 구원받지 못한 중생들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

사라진 절터에서 부처님 법문 들어 원효굴터엔 '우금암도' 오류 찾아내

에서의 구원을 바라며 복을 비는 부처를 말하고, 지장신앙의 근본은 자신의 잘못을 누우며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참회한다는 것이다. 즉 전라북도의 미륵사상은 '참회를 통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라북도 절터의 고요는 순례자인 저자에 게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회의 시간을 마련해 준 것 같다. 유독 이번 책에서 저자 스스로는 자신에 대한 반성의 이야기를 많이 밝히고 있다. “강세황은 어디에서 우금암을 본 것인가.” 책의 8장 부안 원효굴터 편에서는 답사정신의 맥미를 볼

수 있다. 저자는 원효굴이 있는 우금암 근방을 살살이 돌아보며,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자 화가인 표암 강세황(1713~1791)의 그림 '우금암도'에 대해 철저히 비교한다. 강세황의 그림을 보면 개암사 뒤편의 우금암 봉우리가 셋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봉우리들의 높이는 왼쪽이 가장 높고 오른쪽으로 가면 서 낮아진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 최고의 화가가 그린 우금암의 모습은 저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과는 달랐다. 봉우리는 두 개였으며 높이는 오른쪽의 동봉이 높았다. 저자는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우금암을 보았다고 한다. 강세황의 '우금암도'와 일치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의 답사정신은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 바로 '운금암(우금암)'이라고 하는 각자(刻字)의 발견이다. 우금암 근방을 골골살살 조사하던 저자는 원효봉을 오르내릴 수 있는 사다리 근처에서 이 각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는 국내 관련 학계 어느 자료에도 보고되지 않아 그 존재를 알 수 없던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유적을 발견하는 한편, 우금암의 주봉이 서봉이 아니라 동봉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마련 된 것이다. 물론 이런 인문학적인 성과만이 절터의 전부 아니다. 절터는 깊고 넓다. 위에서 소개한 작업이 절터의 깊이라면, 저자가 소개하는 시와 소설은 절터의 넓이다. 불자와 유자들의 시는 물론,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에서 <흔불>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절터를 풍성히 이야기로 가득 채워놓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터'에서 사라진 것들을 바라보는 저자의 안타까운 시선과 소설의 열원을 느끼게 한다. 미륵을 기다렸던 전라북도의 절터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hyunbul.com

좌선의 모든 것

좌선

종달 이희의 지음 | 본북 펴냄 | 8천8백원



처음으로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다. 선(禪)의 의미에서부터 바른 자세와 호흡법, 숫자 세며 호흡하는 수식관(數息觀), 공안을 참구하는 방법, 입실점결 과정 등이 사진, 삽화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인류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 좌선은 최근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 관리와 치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학과 의학, 교육계의 관심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그 영역을 확산하는 분위기다.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세상을 열었던 미국의 기업 애플사의 전 CEO인 스티브잡스는 젊은 시절부터 동양 사상, 특히 선불교와 깨달음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은 좌선의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매일 타는 자동차, 버스, 전철에서의 수행은 물론 좌선이라는 기초적인 훈련에 의한 정신집중의 힘을 일상생활에서도 응용 활용할 수 있는 생활선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 선(禪)이 들어온 것은 신라 진덕여왕 때 범람 선사가 서기 650년 중국 선종의 제4조 도신 선사의 법을 받아들인 때부터이다. 한 때 선도유희(禪道蔚興)의 시대라 하여 약 200

좌선의 의미부터 응용까지 망라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여 년간 그야말로 선이 활짝 꽃피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때 제작된 빼어난 문화재를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듯이 선을 바탕으로 고도의 정신문화가 창조될 수 있었다. 그 까닭은 선이 사물과 하나가 되는 공부이기 때문이다.”며 “선은 바로 잃어버린 참자기를 되찾는 수행이다. 그런데 올바르게 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 흉내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좌선은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초심자를 위하여 요점만 골라 뽑아 참고가 되도록 했으니 몇 번이고 정독하여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석가세존의 호흡법’, ‘수세며 호흡하기’, ‘좌선하는 법’, ‘공안 참구’, ‘견성-공안 타파’, ‘생활선’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은 초심자를 위한 책인 동시에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초심자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요점과 정수만을 골라 집약적이 되도록 했다. 몇 번이고 정독하고, 본인이 직접 실참실수(實參實修)하여 실천한다면 누구라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8~8/14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앤파커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민덕, 만현	한지공헌자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연	불광출판사
7	천년사찰 천년송길	여태동	클리어마인드
8	산사는 길다	지안	불광출판사
9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주경	마음의숲
10	해탈장엄론	김뽀빠	운주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그림으로 쓰고 시로 그린 임효의 그림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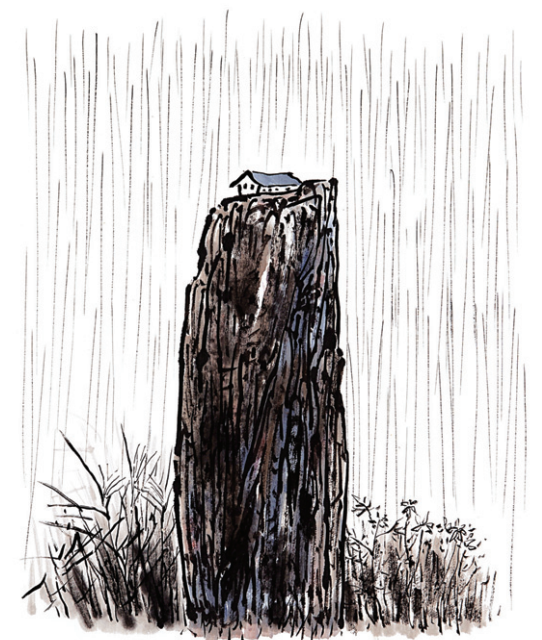
그림 속에 놀다

글 그림 임효 | 나무생각 펴냄 | 1만2천원



붉은 꽃 한 송이가 벽 속에 간혀있다. “우리네 가슴엔 벽이 있습니다. 꽃내음조차 흐르지 못할 벽이 있습니다.” 한국의 혼을 그려온 화가 임효의 그림 에세이다. 이번 책은 작가가 그림을 시작한 이후 그림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갈등, 욕망, 사랑, 등을 시와 산문과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죽었던 한 시절 자취 없이 가버리고 / 시름에 물린 목이 덧없이 늙었어라 / 한 끼 밥 짓는 동안 더 기다려 무었하리 / 인간사 끝결인 줄 내 이제 알았네” 그림은 글을 바라보고 있고, 글은 그림을 읽고 있다. 책 속엔 우물미 있고 떨어질 수 없는 바람이 있고 그 바람엔 소나무가 서있다. 하늘이 만든 달. 달이 만든 하늘. 따끈한 차 한 잔엔 짝사랑이 담겨 있고, 딱 한 점은 먹구름, 책 속에 비가 내린다. 작가는 하늘을 보며 얻

은 영감으로 자연 속의 생명을 그려낸다. 이번 책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골레 사이에서 생활인의 집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예술가로서의 고뇌를 보여준다. 그림의 목격함과 진지함 뒤에 숨어 있는 감성적인 시와 해학적인 산문에서 작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긴 작품생활의 여정 속에서 자신과 교감하고, 대상과 교감하고, 사람들과 교감하며 소통하는 삶, 작가는 그 에너지를 글과 그림을 통해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한다. “그림이 되었던 글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채워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을 때는 때모지나 수첩에 낙서하듯 다 표현하지 못한 감성의 부스러기를 써내려가고는 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모인 글들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림을 그릴 때는 현상과 상황을 중시하며 화면 속에 녹아든다. 그림의 이야기는 내가 되고 나는 그림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그림 속에 놀다 돌아온 시간에 쓰기 시작한 글들이다.”고 작가는 말한다. 채우고 비우고, 다시 채워 가는 과정, 그것이 임효의 그림이고 삶이다. 파란 하늘과 몽게구름, 철마다 다르게 피어나는 꽃,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 가없이 우뚝 서 있는 소나무들은 언제나 작가에게 영감



이 되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작가는 자연의 선물 하나 하나를 그림으로 그리다가 돌아와 시를 쓰고 산문을 썼다. 그림의 여백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시어들과 시어들의 의미를 더욱 진하게 채색하는 그림들. 임효의 그림 에세이다.

박재원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신문염송 20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20권 출간!
설봉선사, 암두선사, 고정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신앙
바로 수행의 길잡이!
바로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선사의
법어와 선문답.
최초 해설

백장특 강설

원오스님 역해
신국판 | 흑백 | 528쪽
20,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선교회통(禪敎會通) 이론 유일한 선어록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으로 연대대오!

그동안 혜능, 마조, 임제, 조주선사 등의 선어록은 해설본이 출간된 적이 있지만 백장선사의 어록이 강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 원오스님은 당선의 공부와 깨침을 바탕으로 번득이는 지혜와 유머가 가득한 선문답을 원문의 깊은 뜻과 맛을 살려 흥미롭게 도움말(보설)을 주고 있다. 특히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의 마음공부(無爲法)를 독자적으로 드러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la5@daum.net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